

제 1 회 세계 한국학 대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7. 19 발표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

이은숙 (北京語言文化大學)

목차

1. 서론

2. '한류' 용어 분석

3. 한류의 진행 양상

3. 1. 드라마, 가요, 영화를 중심으로 본 한류

3. 2. 중국학생들이 보는 한류

3.2.1. 초등학생과 중고생, 대학생의 설문조사 내용

3.2.2. 초등학생과 중고생, 대학생의 설문조사 분석

3. 3. 중국 매스컴이 보는 한류

4. 한류의 지향과 전망

4.1. 중국 대중문화의 대응

4.2. 문화적 다양성과 신명풀이

5. 결론

1. 서론

월드컵 대회 참가 이후 최초 우승이라는 폴란드전에서의 한국팀의 승리를 경제 효과로 환산하면 14 조가 된다고 한다. 직접 광고가 아닌 문화교류에서 파생되는 광고 효과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이익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의 저항 없는 광고, 생산자의 직접적 經濟적 물리적 노력 없는 광고, 환경 오염 없는 광고이므로 이런 광고야말로 광고가 지향하는 최선일 것이다.

최근 2,3 년 간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인한 광고 효과도 아마 이처럼 이중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최선의 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실제로

한류는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가장 큰 계기 중 하나가 되었고,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런 인식의 변화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었다.

거기다 한류는 문화사적으로도 한국인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우리는 역사 이래로 문화적 발신자가 된 경험을 별로 갖고 있지 못했다. 백제 때 일본에 전파해준 한문문화는 사실상 문화 전파의 중재자 구실을 하는 정도였고, 임진왜란 때의 문화 발신자로서의 역할은 자발적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반강제적인 탈취의 결과이고, 일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의도적으로 혼효된 결과일 따름이라서 최근의 한류 현상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드라마와 대중가요가 중심이 되어 일기 시작한 '한류'는 유사 이래 최초의 대중문화 발신자로서 본격적인 문화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문화사의 새장을 쓰게 하였으므로 흥분과 기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한류는 2001년 문화계를 특징지었던 중요한 문화적 키워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심지어 대학 입시에서 한류 현상을 논술 문제로까지 출제했을 정도이니 거국적인 관심의 정도를 읽을 수 있겠다.

그런데다가 문화 수용의 중요 지점이 중국이고, 그 중국이 개혁 개방 이래 최고의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하며 새로운 문화의 수용을 갈구하는 시점이어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므로, 중국에서 일고 있는 한류 현상을 분석해보는 것은 긴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례는 없는 것 같다. 단지 한류를 정책화하려는 보고서만 있을 뿐이다.

본고는 대중문화적 현상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논의를 유발한다는 입장에서 서술하려 한다. 논의는 그 동안의 한류 진행양상을 살펴보고 초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한류 수용양상을 분석하고, 한류에 대한 중국 매스컴의 인식과 중국 대중문화의 대응, 앞으로의 한류의 진행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2.1. 한류 용어 분석

'한류'라는 말은 필자가 확인해본 바로는 중국의 北京青年報에서 1999년 11월 19일에 가장 먼저 쓴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방영으로 조성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H.O.T의 음반 발매와 더불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기가 조성되기 시작할 무렵 클론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거기다 이듬 해 2월 있는 H.O.T의 공연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이제 '한류'란 용어는 널리 쓰이기 시작한다.

이후로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 붐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으로 말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한류' 외에도 '韓風' '韓潮' 등이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 '韓熱'이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韓流'는 '寒流'하고 중국어 발음이 완전히

같은 '韓熱'라고 쓰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거의 대부분의 마스크에서 '韓流'를 쓰고 있고, 일반 한국인이나 중국인도 '韓流'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오히려 '韓熱'이라고 하면 특히 한국인에게 '한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이므로 '한류'를 그냥 받아들여 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는 쓰는 이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런 기회에 정립할 필요를 느낀다.

대체로 '한류'라는 말의 의미는 '한국문화에 대한 열풍', '한국대중문화 바람' '한국 대중문화 열기'(韓國大衆文化熱), '한국 대중문화 붐' '대체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뜻하는 것' '중화권에서 유행하는 한국 대중문화 열풍', 중국 언론들이 '한국의 유행이 밀려온다'는 뜻으로 만든 것으로 쓰이고 있다. 이와는 약간 동떨어지게 '한국의 유행음악'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한류는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가 아닌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도 중국에서는 '日流'라고 부른다. 그런데 '流'는 '조류'나 '유행'에서처럼 '흐름'이나 '진과'의 의미로 쓰이므로 '한국 대중문화 물결'이라는 말이 되겠다. 그런데 '물결'은 여기서는 인간군이 이루는 커다란 흐름을 뜻하므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루어내는 바람, 열기 등의 말과도 상통하는 뜻을 갖는다. 그래서 '한국대중문화 바람(열기, 열풍)' 등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부터 쓰인 '한류'가 한국에 오면 단지 중국의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몽골, 싱가포르, 일본 등 동양권을 넘어 러시아, 미국에서의 한국 물결까지를 가리키는 말로 폭넓게 쓰이고 있고, 중국에서도 단지 중국만의 것으로 한정하여 쓰지는 않았으므로 '중화권'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범주를 넘어서는 영역에서도 '한류'는 무소부지로 쓰이고 있다. "최근 2년 사이에 '韓流'라는 상표가 붙은 한국의 문화가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와 복장, 디자인, 헤어스타일, 영화, 드라마, 바둑, 축구 등 그야말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중국 시나(sina, 新浪) 사이트에서는 '핸드폰 한류', '바둑 한류', '자동차한류', '자본 한류', '한류경제', 'IT 한류' 등의 말들도 보인다.

한국에서도 문화의 영역을 넘어 경제나 농업의 영역에서도 '금융 한류', '한류 농업' 등의 용어가 쓰인다. 급기야는 상아탑의 영역에서도 '학문도 한류'를 하자고 한다. 한류는 대중문화 범주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제는 대중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바람, 한국 물결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다 쓰이는 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의 꼬리표를 떼고, 그저 '한국 물결'이라는 의미로 범주를 확대해서 쓰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사실 대중문화 이외의 범주에서 쓰이고 있는

'한류'는 이미 '한국 물결'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Korea Wave'라는 영어 표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류는 기타 관련 어휘도 파생시켰다. '韓迷', '哈韓族' '韓流分子' 등이 그것이다. 이중 '합한족'은 '한류 팬' '한류에 집착하는 젊은이', '한국 가요에 푹 빠진 중국 젊은이'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哈韓族'을 어휘의 뜻을 그대로 풀어서 '한국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어휘의 뜻 그대로면 한국, 즉 '한국 물결'의 추세에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고 이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류를 쫓는 사람들' 혹은 '한류 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 '韓迷'나 '한류분자'도 대개 같은 의미에서 쓰이고 있으므로 '哈日族'과 같은 조어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널리 쓰이고 거부감이 적은 '哈韓族'을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류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중국 물결'을 '漢流', '華流', '華風', '中流', '漢潮'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중에서 '漢流'와 '華流'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漢流'는 '韓流'와 한국어 발음이 같아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韓流'와 같은 조어법이면 구별이 용이한 '화류'를 쓰자는 제안을 해본다.

3. 한류의 진행 양상

3.1. 한국 드라마, 가요, 영화 등 대중문화의 전파 양상

지난 몇 년간 중국에는 우수한 문학소설이 외면을 당하고 대신 드라마가 크게 각광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중국인들의 드라마 선호 바람에 힘입어 김수현의 <사랑이 뭐길래>는 일찌감치 중국 안방에 진출하였다. 1997년 6월에서 12월 中央 TV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10분에 방영한 <사랑이 뭐길래>는 최고 시청률이 15%에 달했고, 중영되자 재방영을 요청하는 전화와 편지가 쇄도하여 中央 TV는 2차 방영권을 사서 1998년 저녁에 재방송을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 드라마의 시청률이 2% 내외라는 사실을 살펴보면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이후로는 여러 방송사가 경쟁적으로 같은 시기에 방영하여 여러 개의 채널에서 동시에 방영하는 일마저도 있었다.

이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은 한국사람을 만나면 매우 스스럼없이 이 드라마를 화제로 삼곤 하였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 우리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중국 남성들이 전제적인 가장의 권위를 무소불위로 행사하는 이순재를 보고 스트레스를 푼다고도 하였다.

<사랑이 뭐길래>와 <질투>를 필두로 수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중국에 진출하였다. <내 마음을 뺏어봐>, <목욕탕집 남자들>, <별은 내 가슴에>,

<모델>, <토마토> 등등 2000년 9월 이전에 이미 적어도 24편 이상의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이 중 <토마토>는 지금까지도 재방영되고 있다. 이후로도 <의가형제>, <불꽃>, <가을 동화> 등등 수많은 드라마가 방영되었고, 그 중 <가을동화>는 채널을 바꿔 가면서 수없이 지금까지도 두 개 이상의 채널에서 동시에 재방영되고 있다. <사랑이 뭐길래>, <토마토>, <가을동화>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접한 한국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한류의 원천은 드라마에 있다. 애정을 둘러싼 배반과 용서 같은 것이 바로 중국 도시인들이 체험하는 것이다. <모델>, <별은 내 가슴에> 등 잘 포장된 드라마와 그 가운데 유명 배우는 많은 중국인의 추종 대상이 되었다."

98년에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가 <유쾌한 지침>(快樂指南)으로 변안되어, 중국 가수 쑤예(孫悅)가 불러 히트했다. 이렇게 드라마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안방을 공략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 정부의 정식 비준을 거쳐 공식적으로 한국 음반이 중국에서 처음 발매된 것은 98년 5월이었는데 바로 H.O.T의 음반이었다. 이 음반은 발매 1개월만에 5만장을 팔았다. 불법 음반이 보편화된 중국에서 실제 판매량은 정품의 2,30배로 볼 수 있다. 이후 1999년 7월에 진출한 NRG가 발매한 음반도 H.O.T 음반과 함께 10만장 판매에 육박하고 있다.

드라마와 음반으로 서서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갈 때, '클론'(酷龍)의 공연을 시작으로 한류가 바람으로 일기 시작하였다. 1999년 11월 북경 工人體育館에서 있던 클론의 공연 이후 2000년 2월 5일 같은 장소에서 H.O.T(四大天王)의 공연을 성공리에 치르면서 한류는 본격적으로 열기가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클론의 공연을 계기로 '한류'라는 용어가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가요와 드라마가 합동으로 한류를 이끌어 가는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이런 열기가 상품 판매와 기타 다른 영역으로의 확대에 이어져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한국과 중국과의 모든 교류에서는 한류를 기반으로 하거나 적어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그 사이에 일본을 제치고 한국유학생이 가장 많아진 것도 한류 활성화에 한 몫 하였다. 한국 유학생들은 연예인들의 복장이나 가요를 유행시키는 민간사절단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중국학생들이 이런 한국 유학생들의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 학생들의 화장기 없고, 단순하고 활동적인 옷차림인 자신들의 외모에 비해 짙은 화장이나, 커다란 운동화, 통이 넓은 바지 등 실용성이나 성실한 학생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외양인 한국 학생들을 보고 부담이나 거부감이 병행된 것도 사실이었다. 또한 이런 학생들의 외모는 개성 있는 것이 아니라 유행만을 쫓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류가 여러 면에서 강력해지자 한류를 '바이러스'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그리고 한류가 이렇게 중국의 대중문화를 잠식하고 있는 사이 중국의 대중문화는 어디로 실종되었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다. 그러다 대만 가수 장신철의 중국 공연이 성공하자 신문들은 다투어 '태풍이 한류를 날려버렸다'라며 한류를 밀어낸 통쾌함을 표현하였다. 실제로 한류에 열광하는 주요 계층은 중고생이라 할 수 있는데, '哈韓族'이 되었다가 빠져나온(?) 학생의 참회록(?)이 학생신문에 실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류의 열기에 대한 중국 쪽의 우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넓고 광활하게 불고 있는 한류의 바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이 도움(?)으로 시작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90년대 초 봉황위성방송이 대대적으로 일본 드라마를 끌어들이며 높은 시청률을 점유하자 수입 가격을 올려놓게 되어 봉황방송은 다른 출로를 찾다가 대안으로 한국 드라마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드라마로부터 일기 시작한 '한류'는 이제 '日流'를 능가하는 생명력을 가진 것을 인정받을 정도가 되었다.

드라마와 가요가 이렇게 한류의 바람을 불어댔으나 영화는 원거리 사격에 그쳤을 뿐 한류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영화는 <무사>가 한중 합작으로 제작되어 북경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을 뿐, 일반인이 영화관에서 한국영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2000년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북경영화학원에서 '한국영화제'와 학술회의가 개최되어 여러 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접속>, <주유소 습격사건>, <팔월의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시절>, <내 마음의 풍금>, <강원도의 힘>, <미술관 옆 동물원>, <태양은 없다> 등등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2001년 10월에는 중국영화자료관 주관으로 북경, 成都, 상해에서 '한국영화회고전'이 열려서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인 행사는 일반인과의 만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는 홍콩의 봉황위성방송이나 한국의 아리랑 방송이 2,3년 전의 한국영화를 자주 방영하는 방식으로 얼마간 해소되고 있어, 많은 중국인들에게 한국 영화를 접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방송들의 시청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거리에 널려 있는 수많은 CD 판매상들이 중국인들에게 한국 영화를 접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CD가 대부분 불법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한국영화를 알리는 데는 일조하고 있다. 아다시피 중국의 해적판 제조 판매는 세계적이라서 한국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영화조차 CD로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영화는 TV를 통해서, 최근 영화는 불법 CD 판매상을 통해서 접하는 이중 통로를 통해서 한국 영화에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방영되는 한국영화는 국내에서보다 가위질이 심해서 때로는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2002년 6월 7일 봉황위성방송에서 방영한 <정사>는 베드신이 한 건도 등장하지 않아 원작 영화의 특성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를 통한 한류의 활성화는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사실 중국도 한국영화의 최근의 활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부러워하기까지 한다. 금융위기로 자본을 가진 기업가가 자본의 활로를 찾지 못하다가 영화를 출구로 삼은 것이 오히려 이러한 한국 영화의 활황의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과 함께 한국영화의 가장 큰 변화로 영화 유형의 다양화를 들면서 과거의 통속 애정물이나 성숙하지 않은 액션물이나 섹스물과 비교하면 관중의 이목을 일신하게 해 준 현상이라고 최근의 한국 영화를 진단한다.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한 중국인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 영화는 일본 영화의 우아함을 구비하면서도 죽음 같은 어두운 심리는 보이지 않으며 아시아의 우수성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 영화는 관중들을 존중하고 머리 속에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해준다.

영화를 통한 대중문화로서의 한류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3. 2. 중국학생들이 보는 한류

3.2.1. 초등학생과 중고생, 대학생의 설문조사 내용

2002. 1. 11일 북경시 海澱區 소재의 西滯小學 5학년 1반 학생 28명과 북경시 海澱區 소재의 圓院初中(圓業大學附屬中學, 중학교) 2학년 5반 학생 42명과 북경시 海澱區 소재의 圓院高中(圓業大學附屬中學, 고등학교) 1학년 3반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초등학생은 알고 있는 연예인도 많지 않고, 보았던 드라마도 많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한류의 중심세대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H.O.T(14)와 안재욱(16)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가장 좋아하고 있었다. 연속극은 <모델>(9)을 가장 많이 보았는데, 한국 드라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48)가 부정적 평가(25)보다 많았고, 일본 轟대만 轟중국 드라마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한류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중학생은 수많은 한국 연예인을 알고 있었고, 드라마도 <모델>(18), <별은 내 가슴에>(15), <미스터 Q>(13), <이브의 모든 것>(13) 외에도 많은 드라마를 보았으며 1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141)를 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계층으로 평가된다. 가수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동감하거나 동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반반이었는데, 부모들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예인을 알고 있었고, 드라마는 중학생(131)보다 많은 185 건을 보았다고 응답했다. 드라마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158)은 부정적 답변(55)보다 훨씬 많았고, 일본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에 대해 훨씬 긍정적이었는데, 대만 드라마와는 비슷하다는 답변을 했다.

중학생은 콘서트에 별 관심이 없었던 반면 고등학생은 H.O.T(9) 등 여러 콘서트를 보았으며 아는 노랫말도 많아 가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 견해(15)가 부정적 견해(4)보다 많았다. 그러나 부모들은 압도적(20)으로 싫어하였다.

다음은 2002년 1월 16일 北京語言文化大學 일본어과 1학년 24명과 北京語言文化大學 한국어과 2학년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일본어과 학생은 알고 있는 배우로 안재욱(23), 김희선(23), 장동건(17), 이영애(11), 최진실(9), 신현준(8), 김남주(8), 송혜교(7), 최민수(7), 차인표(7), 송승헌(6) 등등을, 많이 알고 있는 가수로는 H.O.T(18), S.E.S(13), 이정현(11), 신화(9), 베이비복스(8), 강타(7), 문희준(7) 등으로 매우 많은 연예인들을 알고 있었다. 드라마도 5명 이상이 본 드라마가 <모델>(16)을 비롯하여 9편이나 되었다. 평가는 긍정(41), 부정(27)이었고, 일본, 대만 드라마보다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중국 드라마와는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청소년이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5), 상관없다(5), 반대하지 않는다(2) 등으로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부모들은 지지하지 않았다.(10)

한국어과 학생들은 10명 이상 알고 있는 배우가 16명, 가수는 13명이나 되었다. 5명 이상 본 드라마가 15편이나 되어 한국에 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드라마에 대해서는 긍정적(84)(부정적(13))이었고, 일본, 대만 드라마와의 비교에서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중국 드라마와의 비교에서는 3건을 제외하고서는 긍정적인 답을 했다. 영화는 홍콩 영화에 비해 전원이 다 더욱 긍정적인 답을 했다.

가요에서도 홍콩이나 대만과의 비교에서도 모두다 긍정적 답을 했다.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11)이라고 보아 긍정적인 견해가 맹목적(6)이라는 부정적 견해보다 많았다.

3.2.2. 초등학생과 중고생, 대학생의 설문조사 분석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보면, 한류 현상에 대해서는 중학교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나, 초등학생도 이미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 드라마는 대개 알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는 연장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견해와 상통하는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이상에서부터는 수많은 한국 연예인과 한국 드라마에 접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선호현상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비슷하나 가수나 가요에의 경사가 심해지며, 이에 따라 부모들의 부정적인 입장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되면 일단 중고생보다도 더 많은 한국 연예인과 드라마를 알게 된다. 또한 영화로까지 관심이 확산된다. 일본어과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한국어과 학생들이 가요나 드라마에 대한 이해도 넓고 평가도 긍정적으로 이해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견해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요와 드라마의 세대간 수용 태도가 다른데 부모와의 입장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가요이다. 부모들은 가요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드라마에 대해서는 자녀들과 별 차이 없이 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자신들도 가요에 대해서는 태도의 진폭이 있으나 드라마에 대해서는 고르게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만, 일본, 중국 드라마보다 대부분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드라마와 가요는 각각 선호하는 연령대와 성별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학교 이상학생의 답변으로 보면 가요는 중고는 10 대(52), 20 대(52), 성별은 여성(14), 남성(14), 남녀모두(58)이라고 답했다. 대학생은 10 대(33), 20 대(21), 성별로는 여성(17), 남성(3), 남녀모두(21)이라고 답했다.

중고생들이 느끼기에 가요를 선호하는 연령대인 10 대 20 대가 구분없이 모두 선호하고 성별에 구분도 없다고 했으나, 대학생은 10 대가 더 선호하고, 일반적으로 성별의 구분은 없으나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더 선호한다고 하여, 한국 가요의 선호 중심을 10 대와 여성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생은 한국가요를 좋아하는 현상이 그만큼 보편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은 한류가 폭넓게 유포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대학생은 대학생이 되면 한국 가요에의 선호도가 약해진다고 보고, 10 대에게 더 적합한 가요, 여성에게 더 적합한 가요라고 보고 있어 한국 가요의 제한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드라마는 중고생은 10 대(39), 20 대(53), 30 대(7), 성별로는 여성(21), 남성(8), 남녀모두(54)로 나타났고, 대학생은 10 대(23), 20 대(29), 성별로는 여성(26), 남성(3), 남녀모두(12)로 나타났다.

드라마에 대해서 중고생은 10 대보다 20 대가 더 선호하며, 성별로는 여성이 더 많이 보지만 일반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선호한다고 한데 비해, 대학생은 10 대보다 20 대가 더 선호하며 대다수 여성이 선호한다고 답했다.

중국에서 대학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부모와 같이 TV 를 볼 시간이 없는데, 중고생은 집에서 통학하므로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부모도 같이 TV 를 볼 수 있는 등 생활 조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30 대 선호도에는 다른 답변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중고생은 여성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녀모두가 선호한다고 답했고, 10 대보다 20 대가 더 선호한다고 하여 연령계층의 상향성은 인정했지만, 남녀구분 없이 선호한다는 인식은 가요와 마찬가지로 한류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긍정한 것이다. 이에 비해 대학생은 20 대와 여성이 더 선호한다고 확실하게 분별했다.

10 대보다 20 대가 더 많이 드라마를 선호한다는 것은 가요에 비해서 선호도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들도 같이 드라마를 보며 드라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별로 없고, 학생들 자신도 모두가 한결같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대만, 일본, 중국 드라마보다 낫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한류의 지속을 꾀하는 데는 가요보다 드라마를 중심축으로 해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는 이유는 연예인들이 멋있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줄거리의 전개나 대사가 자연스럽고 톱진하다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 배경이 멋있고,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고, 극중 인물이 부모에게孝敬스럽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를 싫어하는 이유로는 연령층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체적으로 사랑놀음에 치우친다, 폭력적이다, 남자가 남자답지 않다, 남자가 자기중심적이고, 여성은 너무 순종적이다 등등을 들었다.

가요는 순간적인 한국붐을 조성하고 이목을 모을 수는 있었지만, 이면에는 저항감도 만만치 않았다. 2001. 8.29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원인과 전망' 세미나에서 왕이취안 교수의 '기성 세대는 오히려 한류에 거부감도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짧은 기간에 조성된 신이한 현상에 대하여는 당연히 보수주의적인 저항이 일어나지만, 특히 哈韓族의 배후에 있는 구세대가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10 대 중심 가요로 단일화되어 있는 현재의 해외 진출 체계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이왕에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갖게 된 우호적인 태도를 심분 활용하여 그들도 즐길 수 있는 한국 가요를 소개해야 한다. 현재 가요에 부정적인 계층도 얼마든지 10 대 가요와 다른 성격의 가요를 통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개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선호하고 있는 드라마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한일 드라마를 비교에서 일본은 주제가가 유행음악이 되고 드라마의 화룡점정의 효과를 거두지만, 한국은 배경 음악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나이 들수록 한국영화에 많이 접하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영화를 접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대부분 영화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보여주었고, 홍콩 영화보다도 더 낫다는 평을 해주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많은 한국영화를 접한 한국어과 학생들 전원이 한국영화에 대해 홍콩 영화에 비해 내용이 좋고(9), 배경이 좋고(5), 현실감이 있다(4)고 답하는 등 긍정적 답변을 한 것은 영화의 진출에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인 한류를 위해서 드라마에 이어 영화의 진출을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3.3. 중국 매스컴이 보는 한류

중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한류 바람에 그들 자신도 의아해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래 두 기사 내용은 한류에 대한 중국 매스컴의 입장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로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거대한 발전을 해오며 따라 청소년들은 참신하고 형식이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하여 더 많은 욕구가 생기게 되었는데, 문화와 역사 배경이 상이한 구미 현대문화를 직접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한국 사회문화는 중국 전통문화를 포괄하여 근원적인 동방문화를 기초로 하여 구미와 세계 현대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청년들에게는 신선감과 친화력이 있어서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청화대학 교수 尹鴻 박사는 중한 두 나라는 중화문화 배경이 같아서 생활방식, 가치관 등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일본문화에 비해 한국문화는 훨씬 온화한데, 한국 민족의 기질은 강건한 일면이 있으나 표현하는 방식은 중국인 전통 가치관념과 서로 밀접하다. 중국은 문화상의 차이 때문에 구미문화를 직접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한국의 문화는 사실상 아시아 문화와 유럽 문화를 융합해서 개조한 것이라 비교적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융합과 개조는 경제발전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것이어서 중국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유행문화의 기본 원칙은 생소함을 구비하는 것이므로 중국이 자기의 유행문화를 개조하려면 반드시 외래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만일 중국 유행문화의 개방이 충분치 않고 신선한 혈액의 호흡이 부족하다면 필연적으로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이상에서 언급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류는 필연적이다.

이상 두 논의의 공통점은 세 가지다. 하나는 개혁 개방 이후 사회발전에 따라 새로운 문화 욕구가 생겼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중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문화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 문화는 서구문화와의 융합蠶개조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중국이 경제적인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문화발전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문화발전에 대한 자체적 욕구가 숙성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를 요구할 정도로 경제발전이 이룩되었다는 자신감의 한 표현이며, 경제적인 발전이 새 문화의 수입을 수용할 수 있으리라는 여유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그렇지만 중국문화를 기초로 해서 상이한 문화를 받아들일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궁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문화는 바로 서구문화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류는 동양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서양문화를 융합한 것이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는 대체효과가 있으면서도 서구문화 직수입의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서구문화를 직수입했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 한류를 징검다리로서 서구문화에 접근하여, 때가 되면 서구문화를 충격 없이 받아들일겠다는 것이다.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와 서구문화의 합성물 정도로 한국 자체의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구문화를 중국에 전달하는 대리인의 역할이 끝났을 때, 한류의 생명은 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각론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에 건너오는 한국 드라마는 서양문화를 동양적으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쉽게 생존. 서양 드라마와 달리 동양 도덕률이 담겨있는 것도 중국인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요소로 지적됐다. 홍콩의 권위 있는 주간지 '亞洲週刊'는 2001. 6. 18 일자에서 중국, 대만 홍콩을 아우르는 한류 현상을 같은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정서적 공감 가능성이 높으며 공통적으로 마늘을 먹는 식습관도 의기투합이 가능한 요인이라고 하고, 할리우드와 일본 드라마의 장점을 소화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미한 것이 한류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 드라마는 중국인에게 동방문화 특유의 의미와 매력을 가져다주는데 그것이 한류의 원인이라고도 한다.

앞서 인용한 청화대학 교수 尹鴻 박사는 또한 한국 영화를 본 사람들은 매우 신선함을 느끼고, 또 동방 문화의 바탕을 구미식으로 포장했음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구미 영화는 좋지만 문화상의 차이 때문에 상관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한국 영화를 보면 문화영역의 상근성을 느껴 당장에 왜 중국 영화는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드라마에서의 모방에 대해서는 '한국 드라마는 이국적인 생활 모습, 아름다운 여배우와 예술적인 화면을 통해 사회와 인생에 관심을 갖고 농축된 삶의 숨결을 나타냈으나, 한국 드라마의 복사판인 중국의 청춘우상극은 졸렬한 모방과 창백한 연역만이 있었다. 또한 깊이가 없는 천박한 얼굴과 교만한 연기는 김희선 등의 연기에 나타나는 진정한 감정과 걱정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모방을 통한 以夷制夷전법은 가요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한류가 뜨거워지자 비판이나 우려의 다른 편에서는 직접 한류 주동 음악과 춤을 배우러 유학하는 중국 그룹이 생기기도 했는데 바로 '風雲少年'이 그들이다 이들은 한류의 본고장 한국에 가서 한국 음악으로 무장하여 中'國產韓流'를 만들어내는 전문적 추종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류에 비해 더 한류답다고 극찬을 하기도 하고, 다크호스 '風雲少年'가 한류를 맡아 처리해줄 거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중국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것이 중화권의 화류가 본토에서 한류를 밀어내는 것이며, 그날이 빨리 오는 것이다. 대만가수 장신철의 공연 성공이 같은 날 있는 베이비복스 등의 공연과의 비교를 통해 각각 工人體育館과 首都體育館에서 열린 두 공연이 '동쪽은 열기 서쪽은 냉기(東邊火熱西邊冷)'였으며, 태풍이 한류를 날려버렸다고 하였다.(颱風吹散韓流) 그 소식은 LG 배 바둑 대회에서 중국 기사가 한국 기사에게 탈락한 것을 통쾌하게 갚아주었다는 낭보가 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은 한국 내에서의 한류의 전략과 경제적 효과에도 민감하다. 한국 정부에서도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의식하고 한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KIEP 북경 사무소의 전문연구원 崔義賢은 "한류를 중국에서 財富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은 그것을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책략으로 간주하여 진군을 촉진하는 과정 중에 부대 효과를 얻는 것만 못하다."고 한류를 이용하려는 정책에 일침을 가한다.

北京晚報는 계속하여 한국영화산업의 성장 뒤에는 정부의 검열 규제 철폐 등의 배려가 있었고, 이제 장차 영화 수출액은 자동차산업을 추월할 것이라 한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한류 산업을 육성 추진하려 하는데 북경과 상해 등 도시에 문화관을 건립하여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개하려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WTO 가입과 2008 올림픽 개최가 한국에 문화산업에 가져올 영향을 연구, 2010년에 중국의 문화산업 소비시장의 규모가 394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중 10%만 점유해도 2005년에 19억 달러, 2015년 67억 달러가 될 것이라 내다보았다."

北京晚報는 계속하여 "지금도 한국 대사관은 북경에서 가장 사람들이 벽적거리는 대사관인데 한국문화도 접하고, 한국어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 한국의 최근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 "최근 한국 관련 부문에서 북경 상주 20개 한국 기업과 기관 57명을 대상으로 '한류의 경제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중국인이 한국대중문화를 편애하는 것은 결코 경쟁력이 높거나 우수해서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이상 대정부 보고서나 일간지를 인용하는 北京晚報의 보도는 중국이 한국의 한류에 관한 정책이나 여론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류에 대해 이렇게 민감한 태도는 한류의 허용 수위를 진단하는 것이다. 그것이 허용 수치를 넘었다는 우려가 생기면 언제든지 정부가 통제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안재욱의 공연이 하루 아침에 무산되었던 베트남에서의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문제다.

우리 문화를 서양문화와의 합성물로 보는 시각, 그리고 그 서양문화를 동양적인 방식으로 추종하는 징검다리의 용도로 보는 시각, 그래서 그 안에 내재된 유효시효가 다하면 용도폐기하겠다는 중국의 시각을 어떻게 우리 고유의 상표로 교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바로 관건이다.

4. 한류의 지향과 전망

4.1. 중국 대중문화의 대응

한류가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과연 이 한류가 얼마나 갈 것인지 염려하고, 드라마의 성공이나 한국 공연단의 성공을 표현할 때도 '寒流'를 '韓流'로 바꾸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한류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함의된 전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왔었다.

이런 전제의 타당성을 보여주듯이 실제로 2000년 5월 왕푸징 거리는 이미 많은 H.O.T나 안재욱의 사진들이 <유성화원>의 'F4' 사진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대만에서 2001년 봄 일본만화 <꽃보다 남자>(花より男子)를 <流星花園>(유성화원)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화 하면서 'F4'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드라마를 올 초 중국에서 방영하면서 중국에서도 이들의 인기가 치솟았다. 2002년 5월 19일 상해에서 콘서트가 열릴 때는 상해 공항에 4~500명의 팬이 환영을 나와 항공회사는 폭동을 일으킬까 염려해 'F4'를 팬들 몰래 빼돌릴 정도였고, 티켓은 880원(15만원 정도)짜리도 거의 팔려나갔고, 그것도 상해가 아닌 호남, 강서, 절강 중경 등지에서 예약을 했고, 홍콩, 대만에서의 구매도 있었다. 그들 중 한 멤버의 사진집은 아시아에서 15만권이 팔려나갈 정도여서 H.O.T나 안재욱의 공연이나 인기보다 더한 열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F4는 모두 대만인이거나 화교로 중국인이 이들에게 열광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중국이라는 크고 다양한 나라와 민족에서는 한류를 대체할 문화대안이 내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무협소설의 대가 김용을 비판해서 관심을 모았던 인기작가 왕수어(王朔)는 "홍콩과 타이완의 문화에 대해 나는 줄곧 비판의 입장을 견지 해 왔다. 이전에는 어떤 사회학자들도 중시를 하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외래문화이다." 라고 하여 이 같은 외국문화로서의 홍콩 대만 문화 선망을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 중국인들은 정치적으로는 홍콩이나 대만이 중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망하는 대중문화가 그곳에서 유래한다면 비교적 쉽게 경도될 수 있는 것이다.

올 초 馮小剛 감독의 賀歲片 <大腕>은 330 만 달러를 들여 만든 대형 영화로 작년 중국 영화 중 가장 흥행에 성공한, 입장수입 3500 만 인민폐를 넘은 영화다. 이 영화는 일관되게 민중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풍자적인 영화로 지난 1 년간 있었던 온갖 일을 다 다루는데, 풍소강이야말로 민중의 생존현실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최근 중국영화의 한 지향성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영화는 중국이 한류를 통해 도달하려는 서구문화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그 서양 도시인이 중국의 장례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데서부터 일이 시작된다. 일상 생활이 모두 이 영화의 소재가 되고, 신랄한 풍자가 이루어지며, 언어유희를 통해 모든 광고물이 희화화되어 등장한다. 한국 드라마의 장점으로 현대 도시생활을 과장 없이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는 점을 들고 있고, 전술했다시피 상당수의 학생들도 한국 드라마의 진실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점을 강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단지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넘어선 무엇을 중국 관객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영화의 성공이 보여주었다. 중국 관객의 새로운 취향을 읽어낼 수 있는 사례로 주목되며, 이 또한 한류의 나아갈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을 개발하려는 의도나 각 문화 단위의 특성은 독립된 문화를 가진 모든 단위의 공통점일 것이다.

4.2. 문화적 다양성과 신명풀이

우선 한류에서 출발해보자. 왜 안재옥은 한류가 부는 나라에서 고르게 인기가 최상급인데 여자 연예인들은 나라에 따라서 중국은 김희선, 베트남은 김남주, 대만은 송혜교(최근에는 채림) 등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가.

안재옥은 영화와 드라마와 가요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활약하는 복합성을 가진 연예인이다. 그에 비해 여자 연예인들은 김희선은 <토마토>, 김남주는 <모델>, 송혜교는 <가을동화>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는데, 이것은 여성 연예인은 주로 드라마라는 단일 장르를 통하여 한류의 바람을 업고 있음을 말한다. 이런 인기의 분포도는 역으로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최근 김민기의 <지하철 1 호선>이 인기를 얻은 것도 공연의 복합성이 한 원인이라고 본다. 지하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서민들의 생활을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을 가진 배우 겸 가수들이 등장하여 리얼하게 펼쳐내는데, 2층으로 된 무대의 2층에 자리잡고 서사의 힘보다 더한 비중으로 참여하는 악단의 연주가 공연의 성공에 단단히 한 몫을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로써 "한류, 한국 연속극이 절대 한국문화를 대표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하였다.

2002년 5월 17,8일 신평예술단의 <평화기도> 북경 공연은 복합성 측면에서 <지하철 1호선>을 능가한다. 이 공연에서는 공연자 개개인이 지닌 동서를 넘나드는 다양한 재능을 통해 시공을 잇는 구체화된 고리가 인간이며, 동서와 고금의 분류를 고수하려는 분과성의 지향점도 인간으로 상징되는 통합과 화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복합형 연예인의 등장이 한류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최근 공연 예술의 성공과 안재욱의 성공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복합형 연예인이나 복합형 공연을 통해 관중과 함께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신명이다. 복합성은 쉽게 신명에 도달할 수 있는 한 방식이다. 사람의 기 가운데 興으로 발현되는 것이 '신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명'을 한자로 적으면 '神明'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神'이 '鬼神'의 '神'이라기보다 '精神'의 '神'이다. '鬼神'의 '神'으로 이해하면 사람이 곧 신이어서 신다움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해야 뜻하는 바가 어긋나지 않는다. 연극미학의 세 가지 기본원리, '카타르시스' '테라사' '신명풀이'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3집, 1996년 6월 30일, 459면.

한국이 21세기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원동력은 '감성'이라고 한다. 추계예술대 김휴종교수는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보다 감성적 선택이 중시된다고 말한다. 감성인간이 문화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이다." 숙명여대 홍사중 교수는 "세상의 가치 중심은 정보와 첨단기술에서 이야기와 감성, 문화로 옮겨가고 있다. 시장은 이성의 힘이 아닌 이야기와 감성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한다. 최준식 교수는 '神氣', '文氣'라고 했다. "그런 '신기'는 '끼'의 정신이다. 한국인처럼 가무에 능한 민족도 흔치 않다. 그러다 보니 민첩하기가 그지없고 임기응변, 즉 변화에 강하다.... 이런 것들이 응집되어 우리는 요즘 대중문화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이때의 '감성', '신기' 등은 곧 '사람의 기 가운데 흥으로 발현되는 신명이다.' 이런 흥은 여럿이 함께 할 때 더 커진다. 노래를 혼자 지어서 부를 때 느낄 수 있는 흥보다 여럿이 함께 부를 때의 흥이 더 크다. 노래부르기만 하지 말고 춤을 추기까지 하면 흥이 한층 고조된다. 흥이 고조되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했다. 요즘 축구경기장의 응원단 '붉은 악마'는 바로 이런 흥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며, 안재욱의 성공도 개인의 흥과 집단의 흥을 결합시킨 바로 이런 사례이다.

그런데 이런 흥은 관객 따로 배우 따로 분리되어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어 "관객이 연극 진행에 참여해 마음 속에 간직했던 바를 풀어내어 흥겨움을 누리는 것, 즉 '신명놀이'"위의 논문, 구비문학연구 제 3 집, 1996년 6월 30일, 442면.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런 신명놀이를 잘 보여준 사례가 전술한 2002년 5월 17,8일 신평예술단의 <평화기도> 북경 공연이었다. "이 공연은 드라마와 대중가요로 불을 지핀 '한류'의 열기가 이제는 신명 넘치는 공연예술로 뒷심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신명은 바로 앞서 갈구했던 우리 상표이다. 이 상표는 한국 문화를 한국인 스스로도 '사생아 문화'이고, "우리의 대중문화야말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한 동아시아인들이 싼값에 최첨단의 인스턴트 식품처럼 가장 빨리 맛 볼 수 있는 '중합문화 선물 세트'"이며 "한류는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과 문화 개방의 단계에서 싼값의 유사정서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배출구'"라는 자조를 넘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한류는 중국에서만 현상이 아니다. 베트남, 홍콩, 대만, 싱가포르, 러시아, 몽골, 일본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류를 지피자고 한다.

베트남의 하노이머이 신문에서는 아시아 MTV 사장의 말을 인용 "지금은 일본의 인기프로그램까지 모두 한국의 음악과 패션 매너를 흉내내고 있으며 아시아 전체가 김치 냄새만 나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음악인들은 개인의 자유, 사회, 가족, 학교에서의 보수적 분위기와 어려운 훈련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염원 등 아시아 젊은이들의 구미를 잘 알고 있다."

'한국인들은 아시아인이며, 우리와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뚜렷하고 신선한 문화라고 생각할 뿐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한 대학 사회학자 하빕 콘드커는 한류 열풍은 아시아 전역에서 불고 있는 아시아의 정체성의 재확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일종의 범아시아주의로 이제 아시아는 유럽과 미국이 아니더라도 대안 문화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일본풍과 할리우드풍을 벗어나는 이러한 대중문화의 조류에 대한 CNN의 이러한 보도는 미국문화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서구 중심주의 발전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한류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아시아문화론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 문명론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서구 문명의 보편적 요소를 배척하는 폐쇄적 지역주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구미에 대항하는 아시아 강국의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최원식에 의하면 유럽의 물질 문명에 대한 아시아의 정신 문명이라는 이분법으로 문명을 단순화 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다양성을 인정한 아시아의 민중적 연대가 진정한 아시아 의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규정하기 위해서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왜곡하고 서구와의 대조에만 치우쳐서 수많은 비서구와 비동아시아의 실체를 사상시키거나 동양 중심적 논리와 언어로 왜곡하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많은 타자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성을 비춰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폐쇄된 지역주의'를 넘고, '문화적 제국주의'를 넘어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나아가서는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타자의 거울을 통해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비춰주는 거울로서의 신명을 다시 살펴봐야 할 차례이다. 신명풀이에서는 관객이 타자가 되지 않는다. 진행에 참여하는 관객은 자신의 것을 버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관객의 고유문화로 신명풀이는 더 풍성해지며 힘을 더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이 8강에 진출한 사건은 일본의 TV 아사히 앵커들은 '21세기 세계 축구의 역사를 다시 쓰'는 큰 사건이라 했다. 이로 인해 한류가 주목 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문화를 수출하게 되어 문화사를 다시 쓰게 된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한국을 위해, 주변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어떻게 한류가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가요로 불이 붙었는데, 그 가요가 주로 10대 성향이어서 가요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수용자의 저항이 없는 드라마의 지속적인 수출이 낫다고 말했다. 자국 영화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영화시장의 활황도 한류로 이행해나가야 할 것임을 말했다. 한류의 진행반향에 대한 전망은 중국학생들이 보는 한류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아직까지 중국은 한류를 서양문화와의 합성물로 서양문화를 추종하는 징검다리로서의 기능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시 건널 필요가 없는 다리는 1회용, 일과성으로 족하므로 건너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그 1회용 다리마저 자국의 다리로 대체하기를 바란다. 한 번 지나가면 용도폐기되는 과거의 유물이 되지 않기 위해 한류는 신명풀이의 미학을 계승해야 한다. 그래서 한류가 다리가 아닌 목적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폐쇄된 지역주의'나 '문화적 제국주의'의 관점을 고집하는 한류는 목적지라고 말할 수 없다. '폐쇄된 지역주의'나 '문화적 제국주의'는 대립과

역압이 전제되어 있다. 신명풀이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생성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대립이나 분열의 일과성을 넘어설 수 있다. 한중이, 동아시아가, 세계가 화합과 생성의 문화를 이룩하는데 이왕에 해외로 발을 넓힌 한류가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여기서는 한류와 맞바람으로 일어나는 화류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했으며, 한류의 열기 속에서 일어나는 드라마, 가요, 영화 이외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못했고, 기타 산업과의 관련도 주목하지 못했다. 또한 나라별 한류의 특성을 비교하는 데도 이르지 못했다. 각각 전문 분야에서의 후발 논의가 계속되어 한류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를 바라며 필자 자신도 후일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중앙일보, 1999.03.02 ~2002.05.20, 해당부분.
2. 조선일보, 2000.06.28 ~2002.06.18 해당부분.
3. 한겨레신문, 2001.09.26 ~2002.05.27. 해당부분.
4. 베이징저널, 1999. 12.24. ~2001.11.16. 해당부분.
5. 민족예술, 2001. 8 월호
6. 北京青年報, 1999.11.19 ~2002.05.30, 해당부분.
7. 北京晚報, 2001.11.27 ~2002.05.30, 해당부분.
8. 南方周末, 2002.05.30.
9. 中國青年報 2001.12.20
10. 新浪新聞, 2000.01.25 ~2002.5.30, 해당부분.
11. 기타 - 自由時報, 成都晚報, 天府早報, 해당부분
12. 설문조사, 西滯小學 5 학년 1 반 28 명, 2002.01.11.
13. 설문조사, 圓院初中 2 학년 5 반 42 명, 2002.01.11.
14. 설문조사, 圓院高中 1 학년 3 반 48 명, 2002.01.11.
15. 설문조사, 北京語言文化大學 日本語系 1 학년 24 명, 2002.01.16.

16. 설문조사, 北京語言文化大學 韓國語系 1 학년 21 명, 2002.01.16.
17. 김민수, 루쉰을 통해 본 한류, 진보평론, 2001 년 가을호.
18. 조동일, 연극 미학의 세 가지 기본 원리,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3 집, 1996.06.
20. 정재서 편저, 동아시아 연구, 살림, 1999.